



6월9일
수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김송원	☎	286-6230
----	-------	----	-----	----	-----	---	----------

전남도, 농촌관광 활성화에 두팔 걷어 붙여

-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안전·방역 특별점검 실시 -

코로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여유있게 여행할 수 있는 농촌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이번 여름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도내 모든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69개소, 관광농원 85개소, 농어촌민박 3,151개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4개소 등 총 3,409개소이다.

이번 하절기 점검은 시군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전수 점검과는 별개로 전남도 차원으로 실시된다. 도는 최근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으로 편성, 중수본의 코로나19 대응 하절기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여 22개 시·군 농촌관광 휴양시설을 표본 점검하고, 매달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비상시 대피경로 확보 등 안전관리 체계 ▲물놀이시설 주변 관리상태 및 위험요소 확인 등 물놀이 시설 관리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화재 안전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 인원제한 준수, 이용객 발열체크 여부, 방문대장관리 등 코로나19 대응현황이다.

점검결과 소방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이 도내 농촌관광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63개소, 관광농원 65개소, 농어촌민박 2,0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부적합 사업장 334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현장시정조치 했다.